

# 전남 시·군 음식관광 마케팅 눈길

최근 음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 일선 시·군이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자원으로서 특화음식을 육성하고 마케팅에 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군 별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전남도가 목표하고 있는 6000만명 관광객 시대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음식개발과 음식전문가 양성, 미식음식 품질인증제를 통한 표준모델 발굴,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시설개선 및 정비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역 외식 관광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음식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음식문화 지도사와 해설사,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등이 그들이다.

또 성인병 예방에 좋은 약산 음식인 황금성식, 도토리정식, 두부정식, 계장정식 등 지역 컬러이미지인 황금색과 지역대표 먹거리 음식을 결합한 '장성 황금밥상'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흥군은 재래종 적송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친환경 사료를 먹고

## 특화음식 개발·마케팅·서비스 'UP' 모색

### 전남도 6000만명 관광객 시대 앞당겨 질 듯

지란 한우, 산 성분을 쓰지 않는 무산 김 등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지락·키조개 특화 남도음식거리를 확대, 추진한다.

목포시는 특화된 음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국내 최대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다음 달 서울에서 맛의 도시 선포식을 갖고 목포의 음식 문화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목포시는 특히 '시가 표식을 없애고 매일 회 가격을公示하는 한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관광객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도 절기별 '미식음식 품질인증제 희망 한식당'을 공개모집해 한정식 식문화 지원 확보 및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순천한정식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품질인증 지정종, 메뉴북, 메뉴보드판, 한정식스토리 보드판 등을 지원해주며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동강대 호텔관광과와 지난해 하반기 협약을 맺고 '남도의 맛 대표음식점 경쟁력 강화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맛의 고장 '남도'를 홍보하고 있다.

곡성군은 후매지 특화단지를 조성해 축산, 체험 식도락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확대해 곡성 대표 먹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음식전문 SNS 홍보기자단을 육성해 맛집뿐만 아니라 전통식품 장인, 향토음식 전문가 등을 알려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점 환경조성으로 클린 영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5~10개 업소를 선정해 주방, 화장실, 입식테이블 설치, 노후 외벽도색 등 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신안군은 4월4일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향토음식 자원화 및 상품화전략 등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이 음식점 현지를 방문해 시설개선, 위생개선, 서비스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했다.

전남도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자유여행객들이 혼자서도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단품요리 30선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전남도는 지역을 방문하는 개별 자유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남의 품질 좋은 식재료로 만든 1만원 내외의 요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친환경 농수축산물의 메카인 전남은 신선한 재료로 다양한 음식개발과 함께, 특화거리를 육성해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트렌드에서 맞는 적절한 음식개발 및 서비스는 6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동구,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요리교실 성황

광주 동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에게 스마트폰 없는 도시'번지 보육캠페인 일환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요리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0일 자비신행회(동구 재봉로 134) 후원으로 진행된 요리교실은 동구에 주소를 둔 아빠와 아이 18가족이 참여해 함께 요리를 배우고 만든 요리를 맛보고 살거지까지 하는 체험활동으로 꾸며졌다.

요리는 미역국, 달걀말이, 멸치볶음이 과제로 주어졌다. 미역국 끓이기는 아빠와 자녀가 얼마 생일에 실습해 볼 수 있는 아이টে일로,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은 나들이용과 보관이 오래가는 마른반찬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됐다.

## 서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대청결활동

광주 서구가 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와 새 봄맞이를 맞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29일 오후2시 상무지구 일대 주변 5개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청소는 상무지구 소재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청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불 조성과 성공개화를 위해 수영대회 성공개회 지원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했다.

청소는 경기장 주변 및 숙박업소, 식당가 등 청소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노면정수차 5대, 로보청소기, 청소차량 4대 등이 투입됐다.

## 남구, 지치구 최초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광주 남구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남구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기구수를 자율화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련 규정 제39조에 근거해 남구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 사항이 아닌 관계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구, 특별교부세 35억 확보 현안 추진 청신호

광주 북구가 2019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35억을 확보하면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안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북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사업 3개, 주민 생활안전 사업 3개 등 총 6개 사업 3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라고 3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역 현안 또는 재난·안전 사업 등 사용 목적을 제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북구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지체되어 온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북구가 교부 받은 사업비는 무등산국립공원인입로 노후도로 정비 7억·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개선 5억·첨단산단 인도 정비 4억·광주역 주변 하수도 정비 8억·동문교가~광주천 하수암거 보수 6억·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 5억 등이다.

## 광산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달 26~27일 광주 광산구가 첨단2동 산월1지구, 본량동 명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성 등을 활용한 측량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올해 광산구는 예산 9,600만원을 들여 산월1지구 160필지 67천㎡, 명도1지구 248필지 215천㎡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는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 전체인원의 2/3 이상, 토지 면적 2/3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임행택 기자

## '5·18바로알기' 광주 서구·동구 나선다

### 탐방 프로그램 개발

광주 자치구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바로 알리기 위해 5월 사적지 탐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와 동구에 따르면 5·18 4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지역내에 있는 오월 사적지를 둘러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는 가장 '오월 들레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지 6곳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버스를 운행하고, 탐방객은 동행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5월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25인승 버스 1대를 임차해 1년에 20차례 운행할 계획이며, 해설사로는 5·18 기념재단에서 활동 중인 '오월 지킴이'가 참여한다.

탐방코스는 ▲광천동 성당(들불이화 옛터) ▲5·18기념문화센터 ▲광주시청(상무대 옛터) ▲5·18자유공원 ▲505보안부대(민주인사 구급 장소) ▲국군광주병

원(계엄사령부 취조실) ▲농성광장(계엄군·시민군 대치 장소) ▲양동시장(시민군 주먹밥 나눔) 등 총 13.5km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있는 동구는 '민주·인권 테마 탐방코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구는 '민주 인권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지역 내 주요 5·18사적지를 도보로 둘러보는 트레킹 코스를 구상하고 있다.

탐방코스는 ▲5·18 민주광장 ▲옛 전남도청(회의실·분관) ▲상무관 ▲민주의 종가 ▲광주YWCA옛터 ▲진일빌딩(헬기 사격 탄흔 발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총 1km 가량이다.

탐방시간은 최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30분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또 탐방객의 선택에 따라서는 (고)홍남순 변호사 자택, 너릿재공원, 주남마을 등지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석기영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영광 흥농을 굴비골농협과 고창 상하농협 등에 올해 친환경 농업에 쓰일 경제협력 사업 지원금 7억46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 한빛원전, 10년 째 '친환경농법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원전 소재지를 대상으로 10년째 '친환경 유기농법'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원전 소재지 주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영광지역 농가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전북 고창지역 농가에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누적 지원 금액만 56억24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올해도 영광 흥농을 굴비골농협과 고창 상하농협에 친환경 농업에 쓰일 경제협력 사업 지원금 7억46000만원을 전달했다.

한빛본부는 친환경 유기농법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영광 쌀 TV홍보 소풍 방송 홍보, 굴비업체 연결이 간 구매보조사업, 영광굴비 판매촉진 방송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 (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 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